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 호 [루게 제 24420 호] 주제 103 (2014)년 1월 7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였다.

최룡해 동지, 서흥찬 동지, 박정천 동지, 조남진 동지, 황병서 동지, 김병호 동지가 동행하였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는 대규모의 수산물랭동시설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이곳 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에는 물고기선별 및 세척콘베아, 평판식극동기, 랭동저장실들, 수산물운반에 리용할 지게차, 랭동차 등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수산물랭동실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며 짧은 기간에 방파제를 쌓고 부두까지 갖춘 능력이 대단히 큰 현대적인 랭동시설을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이 앞으로 큰 은을 내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수산물업소들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것과 함께 보관과 가공에 필요한 현대적인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연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품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가 다 맡자는 구호가 참으로 좋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반지지도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물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새로 조직하는 수산물업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표준이 될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업소의 위치도 잡아주시고 설계와 시공단위도 정해주시였으며 자체와 설비보장, 어로공모집, 어선과 어구보장 대책 등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수산물업소를 대양철전으로 건설하여 올해 가을부터는 물고기공급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지휘관들과 일군들이 군인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헌신하고 노력함으로써 올해에 그 어디서나 희한한 물고기풍년을 안아오리라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난해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에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물고기대중, 물고기사태를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물고기잡이에서 계속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당은 승리의 신심뜨들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것을 호소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에 일어날 혁신의 불길이 전국의 수산부문에에서도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물고기잡이조건은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와 사회의 수산사업소가 다름바 없지만 물고기잡이실적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경제부문 일군들이 조건타발을 앞세우면서 인민

군대처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주시려고

주제 103(2014)년 새해의 첫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던 때로부터 여러 날이 흘러갔다. 하지만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이라고 정겹게 불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근한 음성에는 지금도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서 영원한 메아리가 되여 울리고있다.

새해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맞이 하지만 한해가 시작되는 뜻깊은 시각에 우리 인민들처럼 그렇듯 정겨운 부름과 더불어 평도자의 따뜻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은 나라 모든 가정들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방방곡곡으로 울려 퍼지던 그때 우리 인민 모두가 자기들의 집집에 친근하신 그이를 모신것만 같아 무한한 행복감에 휩싸이던 것이었다.

그렇다. 한없이 넓은 품에 인민을 안아 육친의 사랑으로 정과 열을 주시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진정한 나라 대가정의 차려진 어머니이다.

천만군민의 절절한 호도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당보지면에 우리 인민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 주시게끔 불면불후의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친문헌을 정중히 모시었다. 인민들에게 안겨줄 또 하나의 기쁨이 마련되고있는 것이 못내 만족하시어 환하게 지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소에 봄날의 햇빛처럼 따사로운 사랑이 넘쳐흐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년시대를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사동구역 장천 남해전문화동농장 관리위원장 김명연동무가 우리에게 들려준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절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의 잊을수 없는 사연이 추억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제 53(1964)년 1월 24일이었습니다.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농장을 찾아오시어 농장원들에게 분배가 얼마나 차려졌는가에 대해서까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며 우리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농촌문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해결의 최우선적 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 농촌체제를 받아안



고 산 과 수 능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는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주제 102(2013)년 6월

았을 때 우리 고장을 진감시켰던 감격의 환호성이 50년세월이 흐른 오늘날 또 다시 장천땅에 우리소리마냥 터져올랐습니다.》

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 우리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농업부문을 앞장서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나 가도록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아안으며 우리 인민은 참으로 위대한분을 어머니로 모시었다는 긍지와 행복감으로 하여 눈물이 솟아올라 났던 관리위원장의 이야기를 되새겨보는 우리의 눈곱도 젖듯이 젖어든다.

인민생활문제를 언제나 첫자리에 놓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자랑한 현실로 꽃피워가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근로자들은 지금 기세충천하여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최우선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우리 당력사의 갈피에 이 말이 더욱 뜻깊게 새겨진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슬픔속에 잠겨있는 우리 인민을 피눈물의 바다에서 역세계 일떠세워주시던 바로 그때부터였다.

모든 사업에서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첫자리에, 이것을 절대불변의 원칙으로 삼으시고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며 정력적으로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이의 두리에 풍채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해왔다. 창천거리와 풍라인민유원지, 류경원이며 인민아카데미와 룡라스케트장들의 건설... 평범한 나날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3월을 돌이켜보아,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진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여 실로 엄청난 정세가 조성된 그때 평양에서는 놀랍게도 국방공업부문의 대회가 아닌 전국공업대회가 열렸다.

《조선인민은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고

《조선인민에게 승리가 있오라.》

...

세계가 백절불굴의 나라, 영웅조선에 대해 이런 경탄속에 주시했던 그 뜻깊은 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힘있게 선언하시었다.

적들의 무모한 불장난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참연한 정세가 조성된 속에서도 당 중앙은 전국공업대회를 열도록 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환경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

...

하늘이 무너진대도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이 새겨가시던 나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어진 사색의 세계의 폭과 길이는 또 무엇이 어떻게 다 뻗을 있오라.

정령 백두대간의 나무들을 붓대로, 저 푸른 하늘을 붓지로 삼아 쓰고 또 쓰고 다 전할수 없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력사이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랑의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위대한 어머니로 높이 모신 민족의 대명운을 두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금치 못하며 그리움의 노래를 목메어 부르면서 원수님께 일원단심 충성을 다 바쳐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있는것 아니라.

본사기자 김 성 철

총대로 꽃피우신 인민의 행복

군인들이 받아안은 값높은 칭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건설자들이 맡아 진행하고있는 총대꽃피우신 인민의 행복을 찾아오신것은 주제 101(2012)년 4월 어느날이었다.

인민군위생원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공연수조와 보조수조, 과학기술보급실 등 건설현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었다.

아버이장군님의 간곡한 유언과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높이 받들고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전투를

어둠속에서 보아주는 신 공연

주제 101(2012)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평양인민속공원을 돌아보시고는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칭을 폐하 들어주시며 앞장서 걸음을 옮기시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이날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평양민속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러 한층에 두세대로 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살림집들을 일떠세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우리는 1970년대 건설속도를 돌파해야 하며 그것이 오늘 우리 당에서 의도하는 《마식령속도》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이때 동행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지금 군인건설자들이 제일 어려운 지대를 맡고도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있다는데 대하여 보고드리었다.

주체적건축발전의 휘황한 미래를 밝힌 불멸의 대강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기세충천하여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올해에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나가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사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는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로작에는 우리의 주체적 건축역사와 사회주의건축의 본질, 현시기 건설부문에 나선 건설병도업적은 부강조국건설의 만년대로 빛날것이라는 데 대하여 현명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주체적건축개화기를 열어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체적건축발전의 위대한 강령을 받아안는 것은 크나큰 긍지와 영광이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날이 갈수록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으며 건설의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오늘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로작의 정당성과 의의는 무엇보다도 주체적건축의 자랑스러운 발전역사와 전열을 꽃피워 빛내어나갈수 있게 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의 주체적건축은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해방후 보통강계수공사로부터 시작된 주체적건축은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면서년대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그 나날에 우리 조국땅에는 주체적건축의 민족성, 인민성과 조형예술성이 결합된 건설물들이 수없이 솟아났으며 천리마시대, 로동당시대, 강성국가건설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도처에 일떠섰다. 이것은 주체적건축의 위대한 개척자, 위대한 평도자이신 백두산전세위인들의 독창적인 건축사상과 리념, 인민위원의 숭고한 리념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우리 조국의 건설력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탁월한 건축사상과 현명한 평도에 의하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기적과 전변을 이룩하여온 자랑찬 력사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그러하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건축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인민위에 위대한 자립경제의 나라, 행복한 인민의 탁월한 일떠세워주시는 위대한 건설병도업적은 부강조국건설의 만년대로 빛날것이라는 데 대하여 현명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주체적건축개화기를 열어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체적건축발전의 위대한 강령을 받아안는 것은 크나큰 긍지와 영광이다.

건설의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주체적건축역사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주체적건축의 첫 기슭에서 주쳐들었던 우리 당의 건축정책의 리념과 목적은 변함이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주체적건축발전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가 백발백중이 되게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사상은 오늘의 대건설전투에서 든든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로 된다.

로작의 정당성과 의의는 다음으로 세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부문에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나갈수 있는 지침을 밝혀주시고있는 데에 있다.

현시기 나라의 국력과 문명수준을 과시하고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요구를 위한 총족시키자만 중요한 하계 건설부문에 건설을 일으켜야 한다. 건축창조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많이 일떠세워야 하고 민중강성국가의 기치를 든든히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훌륭히 마련할수 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건설부문에조차 종래와는 대비할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에는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축

창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융계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통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건설의 기본원칙이고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핵이다. 건설의 3대요소인 설계와 시공, 건설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건축과학기술을 높은 단계에 도발시키는데 대한 문제, 건설부문을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로작에 담겨진 사상 리론들은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건설분야에서 대변영을 이룩하고 건설의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으로 된다. 지난해에 완공된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대대한다.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하고 뛰어난 승리와 재능,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일군들과 설계가들, 건설자들의 대우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크나큰 힘이고 자랑이다. 우리앞에 방대한 건설과업이 나서고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대로 투쟁해나갈 때 못내일, 절평 못내일, 용사가 있을수 없다.

주체적건축사상과 리론의 생명력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하여도 영원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불멸의 건축대강은 건설의 최진성기를 건설의 새로운 변혁기로 이어나감에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에서 투쟁과 전진의 표대로 빛을 뿌린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사상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에 제시된 사상리론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율해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더불어 천원히 빛날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수놓아가야 할것이다.

김 정 수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온 나라 천만군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올해를 장엄한 투쟁과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영웅적인 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가 6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광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서 선군조선의 변혁기를 열어나갈 애국총정의 일념안고 모은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로 차고넘쳐 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관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 《선군조선의 기상》, 《백두산대국의 위용이라는 구호관들과 글발들,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광과 은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원도 영광이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등의 구호들과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가 광장주변 건물들에 드리워져 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광범기동지, 문경덕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용진, 리부영, 리철만, 김인식 내각부총리들, 근로단체, 중, 조양기관, 평양시대 당, 정권, 경제기관, 대학, 공장, 기업소, 대중일꾼들, 영웅들, 근로자들이 대회사에서 나왔다.

대회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수도의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크나큰 긍지와 신심에 넘쳐 새해의 총진군길에 힘차게 떨쳐나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천만군민에게 태양조선의 밝고 창창한 앞



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자부심을 안겨주는 고무적기치이며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지름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려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산대국의 전성기를 펼치기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끓어번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에 즈음한 정치행사와서 지난해 투쟁의 전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저히 굳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배로 강화하였다.

자위적방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에 서면전승을 이룩하였으며 《마지막승리》창조의 불길높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경제발전공정들을 개진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기지들을 일떠세웠으며 공업과 거리, 살림집, 공공건물들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는 전적으로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영양방직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평양건축종합대학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단위들과 건설장들을 찾았으시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최상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고 그들대고조선군에 힘있게 이끌어주시

었다.

보고자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이 땅우에 강성민영의 새시대를 펼치고 선군군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는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산악같이 떨쳐나 올 해를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렇게 강조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권위,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불멸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대진군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오늘의 영웅적투쟁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과 남새를 비롯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야 한다.

수도건설자들과 전체 평양시민들은 군민협동작전으로 도처에서 건설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원, 유원지들을 비롯한 생활환경을 사회주의신경으로 꾸밀 수 있도록 평양시를 더 웅장화하게 전

면시켜야 한다.

평양화학발전합기업소와 강동지구관광발전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전인불발의 의지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며 인민군대를 성실성으로 원호함으로써 수도에 군사중시기능, 원군기능이 차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꾼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관을 통이 크게 벌리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야 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보고자는 백전백승의 기치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대양기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제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리철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농업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열의드높이 새해전군길에 떨쳐나섰다고 말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농촌에서 사상혁

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하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모든 농사일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겠다.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능, 원군기능을 더 높여 개선하여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능, 원군기능을 더 높여 개선하여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파악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능, 원군기능을 더 높여 개선하여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대진군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오늘의 영웅적투쟁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리철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농업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열의드높이 새해전군길에 떨쳐나섰다고 말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농촌에서 사상혁

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하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모든 농사일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겠다.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능, 원군기능을 더 높여 개선하여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능, 원군기능을 더 높여 개선하여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파악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능, 원군기능을 더 높여 개선하여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대진군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오늘의 영웅적투쟁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리철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농업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열의드높이 새해전군길에 떨쳐나섰다고 말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농촌에서 사상혁

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하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모든 농사일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겠다.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능, 원군기능을 더 높여 개선하여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능, 원군기능을 더 높여 개선하여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파악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능, 원군기능을 더 높여 개선하여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대진군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오늘의 영웅적투쟁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리철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농업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열의드높이 새해전군길에 떨쳐나섰다고 말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농촌에서 사상혁

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농촌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하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모든 농사일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겠다.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능, 원군기능을 더 높여 개선하여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파악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수도에 군사중시기능, 원군기능을 더 높여 개선하여 올해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대진군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오늘의 영웅적투쟁의 앞장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리철만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농업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열의드높이 새해전군길에 떨쳐나섰다고 말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농촌에서 사상혁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학습으로 당조직들이 끓는다

내용을 파고들며 실천방도를 찾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끝없는 감격과 환희속에 받아안은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신년사의 내용을 깊이 파고들고 실천방도를 찾으며 학습을 심화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며 혁명가의 본분입니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의 내용을 깊이 새기기 위한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조직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력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하여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내용을 무한한 격동속에 접한 농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학습열풍을 세계에 일으켰고 있다.

성당조직에서는 신년사의 체계를 직관화하여 회의실과 사무실들에 게시하여놓고 내용을 깊이 파고들기 위한 학습을 심화시키고있으며 부서별로 토론을 적극 벌리면서 문답식학습, 경연준비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파고들면서 자신들이 올해에 수행해야 할 결의의 목표들도 착실하게 세우고 있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놓을데 대한 뜻깊은 내용이 담겨져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건설전계공정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신년사의 정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심화해나가고 있다.

성당조직에서는 책임일군들이 학습반들을 맡고내려가 정무원들과 학습화합을 심도있게 진행하면서 신년사의 내용을 자자구구 가슴마다에 깊이 새기도록 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무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과학기술을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규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며 신년사학습을 잘해나가고 있다.

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국, 처장들을 비롯한 부서책임일군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관행을 위한 작전을 잘하도록 조직적 사업을 앞세우고 있다.

금융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강국을 떠받치는 쌍기둥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피뎌는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잡도리에 받아안은 금속공업성과 화학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신년사 학습을 심화해나가고 있다.

이 성들의 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남

먼저 깊이있게 학습한 정무원들의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신년사학습이 토론과 문답의 방법, 문답의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성의 당일군들과 책임일군들은 학습반들을 맡고내려가 정무원들과 학습화합을 활발히 벌리면서 신년사에 제시된 자기부문의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있다.

전력공업성, 석탄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행을 위한 방도를 신년사의 원문을 자자구구 가슴깊이 새기며 찾아나가고 있다.

전력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신년사학습에서도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담계획을 바로세우면서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문제를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있다.

석탄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신년사학습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철도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학습열의도 높다.

그들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자신들이 지닌 의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내용을 파고들면서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경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

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신년사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적극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경공업공장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놓고 진지하게 학습토론을 벌리면서 신년사의 내용을 자신들의 뼈와 살로 새겨가고 있다.

수산업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물고기잡이전투도 힘있게 벌리고 바다야강식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를 신년사의 내용을 자자구구 가슴마다에 새기면서 찾아나가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문화성, 체육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끝없는 격동속에 받아안고 그 내용을 깊이 파고들면서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행을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학습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여러 성, 중앙기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학습을 심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승리의 신심들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각오를 굳게 다지고있으며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인 올해의 추진동력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

글 본사기자 리준석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필승의 보검

◇ 새해전군이 다그쳐지는 이 땅 어디에서나 목격할수 있는 하나의 후더운 광경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파고들고 깊이있게 학습하는 광경이다. 드라본 출근길에서도 레오로 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놓고 만경대북부회복공정 초급당비서 리순임동무는 흥분에 겨워 이렇게 말하였다.

《새해의 첫 출발선에서 이런 진지한 학습광경을 펼쳐놓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사업과 생활의 유익한 기준으로 삼고 령도자의 손길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평야로써 폭풍쳐 내달리는 충직한 우리 인민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류다른 광경이다. 나도 일군으로서 신년사를 더 직접스럽게 학습하였다.》

가식없이 하는 그 말에 커다란 포부와 희망을 안고 이해의 전진기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신년사학습열기, 신년사학습열풍으로 온 나라가 세차게 끓고 있다.

이것은 신년사에 밝혀진대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신군조선의 변혁기를 기어이 열어나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올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를 위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변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와 요인, 올해 우리앞에 나서는 투쟁과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갈 할 전투적구호, 부문별과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신년사는 천출위원의 비범한 선견지명과 예지로 빛나고 있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는데 올해 전선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 담보가 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신년사학습이 실속있게, 심도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문답식학습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신년사학습이 단거리에서 말갛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년사학습에서도 대오의 기수, 전진의 나팔수들이 일군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일군들은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자신들부터 먼저 뼈와 살로 새긴데 기초하여 중원들의 인식정형을 알아보면서 학습을 심화해나가고 하야 한다.

신년사학습과정이 곧 경제 단위들에서 올해 전투를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작전과 설계를 잘 수립해나가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신년사학습의 실효를 끊임없이 높여 대중의 정신력이 올해의 영웅적진군에서 남김없이 폭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첨단정보기술제품을 연구개발하며 인민경제의 정비화, CNC화를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원천히 풀어야 할 든든한 배심에 넘쳐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있게 학습하는것으로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올해 비약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질했다.

본사기자



수 산 성 에서

합경남도당 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 학습을 올해 당사사업의 첫 공경으로 틀어쥐고 온 도에 신년사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일군들은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실속있게 하여야 하겠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 실린 당출판물을 제때에 배포하도록 하는것을 새해의 가장 중요한 전투로 여기고 그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였다.

도에 《로동신문》이 도착하자 그것을 벌려서 배포하기 위한 전투를 벌여 모든 시, 군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실린 당보가 제때에 가닿게 하였다.

도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자신들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학습하고 중오단위들에 나가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에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소년들의 2014년 설맞이공연 《밝은 미래가 있으라》가 만경대 학생소년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공연장소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과 보살핌속에 마음껏 배우고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며 부럽없이 자라나고있는 학생소년들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관람자들로 려일 흥성이었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외국순님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시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설인사 드림니다》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세쌍둥이 노래 《제일 기쁜 날》, 6중창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원수님》, 노래 《영원한 우리 해님》, 가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아영소로》, 손풍금합주 《세상에 부럽없으라》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이 땅에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영원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시고 주체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합경남도당 위원회 일군들

새해 첫날 합주군 동봉, 조양, 수흥협동농장에 나간 도당 책임일군들은 올해에 농업을 주력방향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을 해설해주면서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고무하였다.

2. 8비달련합기업소, 흥남비달련합기업소와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철공장에 나간 도당위원회비서들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강국을 떠받치는 쌍기둥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깊은 뜻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대를 혁신으로 고무추동하였다.

교양전선관망에 나간 도당위원회비서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대중의 심장속에 심어주는것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힘을 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당일군들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있게 학습하도록 분위기를 세우고 학습지도를 실속있게 하였다.

새해의 첫 토요일에 도당책임일군은 도당위원회일군들에서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며

세우고 그 수행방도를 정확히 찾았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데도 큰 힘을 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내용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여 해설한 학습자료 12만 5천여부를 지체없이 만들어 시, 군,련합위원회들에 배포하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그리고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신년사의 기본내용을 체계화한 직관적물품을 만들어 대중모임장소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들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새해전진기에 펼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심장속에 새기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 당사사업의 첫 공경을 정확히 틀어쥐고 도당위원회의 혁신적인 작전과 지휘로 하여 온 도에 신년사학습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의 신년사학습과 올해사업설계를 위한 전투는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고 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연안군 소정리 당위원회에서

연안군 소정리 당위원회에서는 당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신년사 학습이 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습한 결과는 실천에서 나타내야 하며 실천을 가지고 수준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발표된 새해 첫날의 일이었다.

리당비서 전중운동무는 신년사를 받아안자마자 자자구구 학습하면서 거기에 담겨져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도를 가슴깊이 새기었다.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부문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진지하게 사색하였다.

지난해 제 5, 6, 7작업반의 정보당 알곡수확고가 높은 원인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이관개기를 통이 크게 벌리고 생활화성비와 진기름을 논밭에 많이 낸데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신부터 신년사학습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당면한 농사차별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까지

현실과 밀접히 결부

연안군 소정리 당위원회에서

찾은 리당비서는 일군들을 나란개기와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가 벌어지는 전투장들에 파견 하였다.

제 1, 2, 3작업반 농장원들이 일하는 나란개기 전투장에 나간 리당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의 신군조선의 변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약과 혁신의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올해신년사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력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우리 연백지역의 협동농장들이 혁신의 불바람을 높이 추켜들고나가는 온 나라의 농장들이 무겁게 일어나게 된다.

지난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은 작업반들의 경험을 실례로 들며 그들의 말을 들으며 농장원들은 올해에 기어이 알곡생산목표를 정밀할 결심을 다지었다.

이 무렵 제 10, 9, 4작업반

농장원들이 일하는 나란개기 전투장에 나간 리당위원장은 그들과 함께 일하였다.

일침이 피자 올해신년사의 기본체계와 내용을 보여주는 걸그림에 나란 그 《승리의 신심들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자!》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갈 할 전투적구호라고 강조하고나서 신년사 학습을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신년사에서 농업부문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 물었다.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할수록 올해농사를 잘 짓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각하게 된다 고 하면서 당면한 영농사업과 관련한 장발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어떤 농장원은 나란개기과제를 보름동안에 끝내겠다고 하였다. 낮에는 나란개기를 하고 밤에는 읍지구에 나가 진기름을 날

라울으로써 거름생산량을 지난해보다 훨씬 늘이겠다고 하는 농장원도 있었다.

신년사학습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데서 리당 위원회일군들은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신년사를 받아안은 날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초급일군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년사학습에서 앞장서도록 불을 지켰다. 초급일군들이 앞장서는것으로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올해 비약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질했다.

본사기자 손영희

구바대사관 녀성들 평양산원 참관

구바혁명승리 55돐에 즈음하여 주조 구바공화국대사관 녀성들이 6일 평양산원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우리 당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깊이 전하는 의료봉사자의 여러 치료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공연 《밝은 미래가 있으라》 려일 진행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외의 정을 감명깊게 노래 하였다.

3중창과 합창 《원수님은 우리 행복 우리 앞날》, 민족가악3중주 《제일 좋은 내 나라》, 민족가악과 노래 《어머님 먼저 갈가》, 중창 《달리자 사랑의 불마르고》를 비롯한 종목들은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후대들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잘 형상하였다.

축복동들의 무대 《해님의 축복》, 음악과 무용 《원수님을 따라 끝까지》, 합창 《만경대 렬룡 백두의 렬룡 군진기 이어가리》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

다 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대수령들의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이 올해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바란다. 대사관성원들은 선원에 기념품을 남기었다.

주체사상 국제 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떠나갔다

오가미 겐지씨 주체사상국제 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6일 평양을 떠나갔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한봉회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 동포조국방문단이 6일 비행기

연안군 소정리 당위원회에서

연안군 소정리 당위원회에서는 당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신년사 학습이 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습한 결과는 실천에서 나타내야 하며 실천을 가지고 수준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발표된 새해 첫날의 일이었다.

리당비서 전중운동무는 신년사를 받아안자마자 자자구구 학습하면서 거기에 담겨져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도를 가슴깊이 새기었다.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부문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진지하게 사색하였다.

지난해 제 5, 6, 7작업반의 정보당 알곡수확고가 높은 원인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이관개기를 통이 크게 벌리고 생활화성비와 진기름을 논밭에 많이 낸데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신부터 신년사학습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당면한 농사차별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까지

강하천정리사업에 력량을 집중

철 산 군 에 서

철산군에서 강하천정리사업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큰물길을 막고 강철주변을 보기 좋게 잘 꾸려야 합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군안의 모든 강하천들을 정리하면서 개바닥흙을 많이 파내어 논밭의 흙갈이를 진행할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지난해말에 문봉협동농장의 배수로 7, 6km에 대한 정리공사를 진행하여 300여정보의 논을 문봉리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파낸 1만 5000m³의 개바닥흙으로 흙갈이를 진행하였다. 이것으로

강하천정리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 짜고들었다.

강하천정리공사에 동원된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력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심장마다에 깊이 새기면서 일군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새해에 들어선지 며칠 안되는 사이에 수천m³의 개바닥흙을 파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하천정리에 부침땅을 가지고 있는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장원들을 발동하여 파낸 질퍽한 개바닥흙을 가지고 흙갈이작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다.

본사기자

강하천정리사업에 력량을 집중

철 산 군 에 서

철산군에서 강하천정리사업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큰물길을 막고 강철주변을 보기 좋게 잘 꾸려야 합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군안의 모든 강하천들을 정리하면서 개바닥흙을 많이 파내어 논밭의 흙갈이를 진행할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지난해말에 문봉협동농장의 배수로 7, 6km에 대한 정리공사를 진행하여 300여정보의 논을 문봉리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파낸 1만 5000m³의 개바닥흙으로 흙갈이를 진행하였다. 이것으로

태양의 위엄을 받들어 주제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신뢰의 정이 우리의 행성에 굽어차고있다. 온 인류가 《현대정치, 현대군사, 현대사》, 《세계적인 수준을 돌파해나가는 리상형의 지도자》, 《해상처럼 솟아오른 젊은 신 령도자》이라고 위인칭송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세계가 김정은열풍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령도자로서 지혜와 탁월한 실력과 품도를 갖추고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도 짧은 기간에 수십억의 인류를 거대한 충격과 끝없는 환희속에 설레이게 한 경에하는 김정일의 존귀한 영상이 각국의 출판보도물에 모셔지기 시작한 것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대회에 진행된 때부터였다.

인류들은 한결같이 경에하는 원수님의 존귀한 영상을 배우신위인들의 태양의 모습 그대로 잊고있고 하면서 자주시대의 또 한분의 천출위인 김정은동지를 모신것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전통을 존중하여 영광이며 진보적인인류의 대경사라고 격찬하였다.

이란중앙TV방송은 2010년 세계적인 주요인물인 하나로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대회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최고지도자로서 추대되신것을 축하했다.

캄보자 아카베통신사 블레젠

세계를 진감하는 위인칭송의 열풍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대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추대되시어 정치무대에 공식 등장하시자마자 일약 세계적인 명인으로 되시었다. 2012년에 들어와서도 세계의 주요언론들이 그이름 명언으로 선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에 대한 세계 언론의 평은 인류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커다란 반향을 모은 지도자이시라는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은 전세계를 무한히 격동시켰다.

한 200명의 외국자들이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는 열병식을 현지에서 보도하였다. 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경에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이 시작되자 각국 방송원들은 《지금 김정은령도자께서 공개연설을 하고계신다. 조선인민들은 물론 전세계가 처음으로 그이의 연설을 청취하고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파격적인 사변이 일어났다.》고 일제히 사보로 날리었다.

단 며칠동안에 1만 2000여 개 출판보도물이 《조선에서 김정은시대가 닦을 올렸다》, 《김정은령도자 선군정치 계속을 다짐》, 《김정은령도자 조선의 최후승리를 선언》이라는 제목의 경에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특별소식으로 전하였고 수억명이 시청하는 전례없는 일이 일어났다.

세계의 출판보도물들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욕성이 전해지기는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연설의 내용에 표현에 이르기까지 자자구구에 담겨진 심오한 의미를 평하였다. 《인민일보》, 《신화통신》, 중앙TV방송, 《한자시보》, 《메이징일보》를 비롯한 중국의 대정보도수단들은 《조선에서 김정은시대가 닦을 올렸다》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트린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최고지도자의 연설은 매우 특별한것이다. 이것은 젊음으로 약동하는 새 지도부의 지도력을 과시하고있다고 평하였다.

올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은 세계언론계가 주시하는 특대소식으로, 국제정치적 초점으로 되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를 첫날부터 1만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특대소식으로 광범위 전파되고 있다. 수백억명이 TV 및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시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대회에 진행된 때로부터 2012년 9월까지 2만여개의 신문, 통신, 방송, 잡지 등이 지면과 화면에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님의 사진문헌들을 편집하고 영화문헌자료들을 방영한 사실은 5대륙에 걸쳐있는 위인칭송의 열풍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 진보적인인류는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을 담아 새겨 지성의 세계를 펼쳐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태양질 100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미국의 CNN방송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조국개선 연설을 상기시키면서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경축연설이 가지는 사변적의의를 다음과 같이 부각시켰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국가수반으로 되신 이래 처음 큰중요한 연설을 하신다. 그리고는 연설에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조선최고지도자의 연설은 매우 특별한것이다. 이것은 젊음으로 약동하는 새 지도부의 지도력을 과시하고있다고 평하였다.

올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은 세계언론계가 주시하는 특대소식으로, 국제정치적 초점으로 되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를 첫날부터 1만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특대소식으로 광범위 전파되고 있다. 수백억명이 TV 및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시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대회에 진행된 때로부터 2012년 9월까지 2만여개의 신문, 통신, 방송, 잡지 등이 지면과 화면에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님의 사진문헌들을 편집하고 영화문헌자료들을 방영한 사실은 5대륙에 걸쳐있는 위인칭송의 열풍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 진보적인인류는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을 담아 새겨 지성의 세계를 펼쳐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태양질 100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린 훈장, 메달, 명예칭호, 축기와 선물만 해도 무려 200여점에 달한다.

수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 및 지역기구인들은 사상도 령도도 품도도 배우신위인들을 대헌 진보적인류의 경도의 세계를 열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를 맺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가 딸리아지부의 한 성원은 유리공예 《옛새기추정기》를 선물로 올리면서 진경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은 비록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세계정치의 중심에서 위대한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고있다. 햇빛은 이 축정기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다시말하면 조선의 태양은 바로 김정은동지이다. 위대한 태양을 모신 조선이 세계를 주도하며 주제의 길로 확신있게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나의 심정이 그대로 이 선물에 반영되어있다.》

태양조선이 밝고 아름다운 배후수인들을 칭송하여 세송이 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인사의 정을 담아 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계, 사회계와 국제기구인사들이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인사의 정을 담아 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태양조선이 밝고 아름다운 배후수인들을 칭송하여 세송이 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인사의 정을 담아 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태양조선이 밝고 아름다운 배후수인들을 칭송하여 세송이 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인사의 정을 담아 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태양조선이 밝고 아름다운 배후수인들을 칭송하여 세송이 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인사의 정을 담아 작품들을 창작하고있다.

독립국가협동체 및 동유럽나라 대통령들의 신년사

독립국가협동체 및 동유럽나라 대통령들이 새해 2014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였다.

우즈베키스탄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는 지난해 나라의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며 현대적인 공장과 병원, 대학, 전문학교들이 건설되고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등 국가발전의 믿음직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2014년의 선진적인 과정은 현 세계의 불안정한 정세로부터 나라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며 보건과 교육 등 사회분야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마련하는 한편 현대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정신속 제적으로 준비된 세 세대들을 육성하는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우즈베키스탄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는 지난해 나라의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며 현대적인 공장과 병원, 대학, 전문학교들이 건설되고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등 국가발전의 믿음직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2014년의 선진적인 과정은 현 세계의 불안정한 정세로부터 나라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며 보건과 교육 등 사회분야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마련하는 한편 현대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정신속 제적으로 준비된 세 세대들을 육성하는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우즈베키스탄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는 지난해 나라의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며 현대적인 공장과 병원, 대학, 전문학교들이 건설되고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등 국가발전의 믿음직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2014년의 선진적인 과정은 현 세계의 불안정한 정세로부터 나라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며 보건과 교육 등 사회분야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마련하는 한편 현대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일본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처사 규탄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지난해 12월 27일 일본집권자의 위선적이며 무분별한 처사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는 아베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후에 한 궤변은 물론 1년동안의 그의 모든 언행에서 허위와 무분별성, 자제모순을 볼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는 말로는 도의와 평화, 대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침략미정론을 고취하고 일본군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역사를 미화보수하며 군비를 확장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성과를 부정하려고 시도하며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아베가 일본을 어디로 끌고가려 하는가에 대해 고도의 경각성과 우려를 가지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집권자가 계속 그릇된 길을 고집하면서 정외에 도전하며 인류의 향상을 짓밟고 이 오타나라들과의 관계의 한계선에 도전하려 한다던 중국은 끝까지 동반자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총부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수

상 아베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것으로 하여 아시아나라들과 국제사회에서 신랄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속

에 일본정부 각료가 1일 신사참배를 강행하며 대해 언급하고있어서 또 하나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일본은 국제공공의적의 망을 다시금 드러내것으로 되며 세계반파쇼전쟁승리와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위험한 동향으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중국언론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은 역사를 되돌려서우려는 일본의 시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암담한 현실

범죄 성행 미국의 뉴시에서 각종 범죄가 성행하여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최근 뉴시시 당국은 총기범죄와 살인범죄 건수가 각각 1093건, 332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실업위기 미국에서 실업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미로통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1일

월 28일까지의 1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33만 9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빈곤자수 유럽동맹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다. 최근 유럽동맹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현재 동맹성원국들에서 빈곤속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수가 1억 240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네덜란드에서 생활한 등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있다. 최근 이 나라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012년에 우울증 등 정신질

환에 걸려 교통속에 생활한 주민들의 비율이 인구의 10%이상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무역적자 튀르키예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무역적자가 650억US\$에 달하였다. 최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살림집가격 인상 우즈탈리아에서 살림집가격이 오르면서 주민들의 부담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살림집평균가격이 그 전년에 비해 9.8% 인상되어 2009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교통사고

블리비아의 수도 라파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소형버스와 화물자동차가 충돌하여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가나의 중부지역에서 달린 화물자동차가 소형 버스를 들이받아 14명의 사망자가났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0시경에 각종 교통사고로 20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전 달린 버스과 화물자동차와 충돌하여 11명의 사망자가났다고 한다.

남아프리카의 프레토리야와 요한네스부르그사이의 철길로선에서도 13명 령차탈선사고가 일어나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크와줄루-나탈주에서 달린 버스가 전복되어 6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보다 앞서 1일 이주에서 2대의 자동차가 충돌하여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발사기 시험 기행 미국이 침략전쟁수행에 써먹을 새로운 무인기들을 개발, 배비하는 데 발판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얼마전 미해군이 수중 잠수함에서 무인기를 발사하는 시험을 벌였다.

나토군비행기 추락 얼마전 아프가니스탄의 남부지역에서 나토군소속 비행기가 추락하였다. 비행기가 타고있던 나토군병사 6명이 죽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제재책동 비난

이란국가부리리사회 위원장 아르바트 하세미 라프산자나가 얼마전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또다시 대이란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란핵 문제와 관련한 제네바합의가 실현될지 1주일만에 자기의 약속을 저버리었다고 까닭하고 미국을 신뢰할수 없는 나라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부당한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정당한 핵권리를 인정할때 대한 이란정부의 요구는 강결코 무리한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군의 살인만행 규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가자지대의 베이트 하누시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무고한 팔레스타인인 1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살인만행은 국제사회의 항의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아랍국가연맹이 지난해 12월 26일 폼푸니계를 발표하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대를 공격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을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폼푸니계를 이를 위협한 정세간쟁책동으로 단죄하였다.

폼푸니계를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 계속 봉쇄하고있으며 거의 매일과 같이 팔레스타인인들

조하였다.

한편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미국회가 이란을 반대하는 새로운 제재법안을 채택하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이것은 이란에 대한 심리적압박감을 조성하려는 여러 식은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이란정부는 그러한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예외없음을 단정중지할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랭전을 예감케 하는 로미마찰

미국은 유럽미사일방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로씨야에 대한 대위협을 형성하여 로씨야에 대한 패권적위위를 이루어보려고 대결이 그대로 재현되고있다.

올간 기간 이어지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압박하며 헛거울을 해운 두 나라사이의 모순은 로씨야가 대국의 지위를 되찾는 것을 막고 세계체제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정책과 자기의 존재와 지위를 지켜내려는 로씨야의 대응조치의 마찰이고 대립이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고 랭전은 어긋나자 패제를 올리면서 마치도 세계가 저들의 지배에 들어온듯이 이 시대대중도 미국은 어느 한시도 로씨야라는 잠재적적수에 대한 경계심과 대결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세계《유럽초대대》행세를 하자니 강력한 국가건설을 목표로 새롭게 대두하는 로씨야의 존재를 무시할수 없었던것이다.

랭전대결구조가 허물어진 조건에서 미국은 《사회주의위협》을 《유럽에 대한 미사일위협》으로 바꾸고 로씨야에 군사적위협을 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중의 하나가 잘리닌그라드주에 기동전술미사일중합체를

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살인만행을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규탄하고 이러한 봉쇄와 침략책동을 단정중지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공공체에 호소하였다.

팔레스타인대통령 보라판이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군의 계속되는 살인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요르단강안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팔레스타인 2명이 목숨을 잃은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을 평화과정의 진전을 위한 국제공공체의 노력을 파란시키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불법무도한 행위로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이러한 행위가 팔레스타인-이스라엘평화회담을 침체상태에 빠뜨리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은 유럽미사일방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로씨야에 대한 대위협을 형성하여 로씨야에 대한 패권적위위를 이루어보려고 대결이 그대로 재현되고있다.

올간 기간 이어지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압박하며 헛거울을 해운 두 나라사이의 모순은 로씨야가 대국의 지위를 되찾는 것을 막고 세계체제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정책과 자기의 존재와 지위를 지켜내려는 로씨야의 대응조치의 마찰이고 대립이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고 랭전은 어긋나자 패제를 올리면서 마치도 세계가 저들의 지배에 들어온듯이 이 시대대중도 미국은 어느 한시도 로씨야라는 잠재적적수에 대한 경계심과 대결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세계《유럽초대대》행세를 하자니 강력한 국가건설을 목표로 새롭게 대두하는 로씨야의 존재를 무시할수 없었던것이다.

랭전대결구조가 허물어진 조건에서 미국은 《사회주의위협》을 《유럽에 대한 미사일위협》으로 바꾸고 로씨야에 군사적위협을 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중의 하나가 잘리닌그라드주에 기동전술미사일중합체를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제조업부문 생산증대 싱가포르의 제조업부문에서 지난해 11월에 생산량이 전

년 대비 4% 증가하였다. 최근 이 나라 경제발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야생동물보호노력 네덜정부가 야생동물들을 보

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는 치프관우에 있는 국립공원에 첫 수평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방원이 건설되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야생동물보호노력 네덜정부가 야생동물들을 보

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는 치프관우에 있는 국립공원에 첫 수평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방원이 건설되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야생동물보호노력 네덜정부가 야생동물들을 보

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는 치프관우에 있는 국립공원에 첫 수평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방원이 건설되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야생동물보호노력 네덜정부가 야생동물들을 보

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는 치프관우에 있는 국립공원에 첫 수평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방원이 건설되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야생동물보호노력 네덜정부가 야생동물들을 보

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는 치프관우에 있는 국립공원에 첫 수평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방원이 건설되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야생동물보호노력 네덜정부가 야생동물들을 보

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는 치프관우에 있는 국립공원에 첫 수평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는 치프관우에 있는 국립공원에 첫 수평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방원이 건설되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야생동물보호노력 네덜정부가 야생동물들을 보

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는 치프관우에 있는 국립공원에 첫 수평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방원이 건설되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야생동물보호노력 네덜정부가 야생동물들을 보

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는 치프관우에 있는 국립공원에 첫 수평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방원이 건설되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야생동물보호노력 네덜정부가 야생동물들을 보

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는 치프관우에 있는 국립공원에 첫 수평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방원이 건설되면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야생동물보호노력 네덜정부가 야생동물들을 보

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나라에서는 치프관우에 있는 국립공원에 첫 수평원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